

광주동·서부교육청, 유치원 대상 급식 위생·안전관리점검

학교급식법 개정...30일부터 학교에 준하는 위생관리수준 적용 겨울철 식중독 예방 유치원급식 위생·안전 점검 및 컨설팅 실시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이 유치원을 대상으로 급식 위생·안전관리점검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돼 위생관리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이에 따라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유치원급식 시 위생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1월25일~2월9일 관내 공·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급식 위생·안전관리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면역력이 약한 유아들의 겨울철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인위생관리, 식재료관리, 급식 설비·기구 세척 및 소독 보관 등에 중점을 두며 점검을 실시한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급식실 이용 시 생활 속 거리두기, 소독제 구비, 배식방법 등을 점검해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유치원

급식도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에 준하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유치원 급식현장을 고려한 컨설팅을 통해 급식운영의 어려운 점이나 미비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김철호 교육장은 "이번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유치원 급·간식 운영관리 지침서에 따른 주요 점검사항 등 자율적인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조인호기자



전남교육청, 교사 수준 교육과정 연수 실시

포스트코로나 시대 블렌디드러닝 역량강화 연수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겨울방학을 맞아 교사의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역량을 키우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블렌디드러닝(원격수업 + 등교수업)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갖는다.

전라남도교육청은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도내 초등학교 429교 교사 436명을 대상으로 오전에는 교사 수준 교육과정 연수, 오후에는 블렌디드 러닝 연수를 실시한다. 첫날인 25일에는 신안, 구례교육지원청에서 교사 29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 다양한 교육적 상황(학교·학급 실태, 코로나 19)에서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협력적 배움을 실천하는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사수준 교육과정 연수는 학생 성장을 위해 교사 개인이 학급 교육과정을 편성해 학급 및 교사관을 세우고, 교육과정을 직접 재구성해보고 사례를 나누는 실습형으로 이뤄진다.

블렌디드러닝 연수도 교육과정 재구성·수업설계 방법, 원격 수업 질 향상을 위해 '도입(출결확인, 온티켓)-전개(학생참여 중심 에듀테크 활용법)-정리(과제 확인, 평가와 피드백)' 등 한 차이를 교사들과 함께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는 "나만의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됐다."면서 "교육전문가로서 학생들과 함께 나만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등교와 원격이 병



행되는 상황에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학생들과 관계를 맺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중혁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생, 학부모와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만의 수업분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학생들의 삶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순천대학교, 체육 실기고사 수험생 배려 내일부터 열흘간 운동장 특별개방 한다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는 최근 코로나19로 관내 모든 체육시설을 폐쇄함에 따라 훈련장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체육 실기고사 준비 수험생들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열흘간 대학 운동장을 특별 개방 중이라고 밝혔다.

순천대는 순천시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아낌없이 지원하기 위하여 철저한 방역관리를 갖추고 한시적으로 운동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순천시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체육대학 입시 수험생이면 누구나 운동장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신청은 순천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유선으로 문의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특별 개방을 통해 운동장에서

연습에 매진한 순천 마산고등학교 김하준(3학년) 학생은 "체육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데 연습 장소가 없어 막막하던 차에 좋은 시설이 갖춰진 순천대학교 운동장에서 입시 준비를 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이용 소감을 전했다.

순천대학교 고영진 총장은 "예체능 계열의 수험생들이 한창 입시 준비와 연습에 열을 올릴 시기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운동장 개방을 결정했다."며 "안전 조치와 함께 새로 단장한 운동장의 특별 개방을 통해 순천대학교가 순천시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펼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화순교육지원청, 전남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설명회'

다음달 3일까지 서울지역 유학학생 가족 대상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식)은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 대상학교로 화순초등학교이서분교장과 전태초등학교, 화순도암중학교가 선정된 가운데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서울지역 유학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설명 및 농가 방문 안내를 시작하였다.

전남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은 전남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의 협약을 통해 서울지역 학생들이 전남지역의 학교에 다니면서 자연·마을·학교 안에서 계절의 변화, 제철 먹거리, 관계

맺기 등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프로그램으로 화순지역은 농가와 함께하는 홈스테이형 3명과 가족단위로 이주하여 생활하는 가족 체류형 5명의 학생이 전학 올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유학희망 학생 가족이 희망 학교와 농가의 사전 방문을 통하여 전학이후 학생의 안정적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기회로 활용되었으며, 먼저 학교방문을 통한 학교교육과정 및 특색교육활동에 대한 설명과 농가 방문으로 생활환경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화순교육지원청의 학교교육과정 지원 활동과 화순군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 안내를 통해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화순지역에 대한 정보 공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서울지역 학부모는 "가차역까지 마중 나와 주신 마을관계자분들과 교문에서부터 맞이하여 주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사랑과 정이 가득한 교육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소소한 것 하나까지 설명회 주심에 감사드리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화순생활이 기대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광주교육연수원, '14 체크인 콜' 서비스 운영

광주교육연수원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5일부터 전화한통으로 방문자 기록 관리가 가능한 '14 체크인콜' 서비스를 운영한다.

'14 체크인콜'은 방문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연수원 고유번호(14-8986)에 전화하면 방문 인증이 완료된다. 통화 비용은 수신자 부담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출입명부 대체전화 서비스 정책인 '14 체크인 콜'을 통해 수기 명부 방식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 및 QR코드 방식에 어려움을 느끼는 디지털



취약자의 불편함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4주 동안 보관되는 방문기록은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역할 조사를 할 경우에만 사용된다.

조인호기자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